

“전통 불교학 정체성 되살리자”

중앙승가대가 11월30일 학교 본관 4층 대강당에서 '승가학풍 수립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제 1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이 '불교학과 승가학의 제문제'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김성철 교수(동국대 불교학)가 향후 불교학의 바람직한 방향-인문

학과 불교학의 공존성을 중심으로, 유승무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가 '승가학풍의 사회과학적 의의', 종석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이 '승가학풍이 승가교육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기조강연 및 발표문, 토론내용을 요약했다.

중앙승가대 '승가학풍 수립' 세미나

“승가학, 21세기 불교교육 방향”

종범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근·현대의 불교학은 인문학적 불교학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인문학적 불교학이란 불교를 문헌학, 역사학, 비교철학의 입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불교학은 전통불교학과는 다른 세속화된 불교학이며, 불교의 이념체계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전통불교학에서 보인 신해(信解) 수지(受持) 독송(讀誦) 등의 학습경험이 불가능하며, 선대 선지식들의 법은(法眼)을 느끼기 어렵고, 발심수행의 감화를 받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문학적 불교학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전통 불교학의 정체성을 계승하여 불교를 전하고 승가를 육성하는



데 적합한 불교학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교학을 '승가학'이라 명명할 수 있다. '승가학'은 인문학적 불교학의 계승성을 지양하고 전통불교학의 이념을 계승하여 이 시대의 승가교육에 적합한 새로운 개념의 불교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학문체계의 구상이 아니라 통합성과 정체성에 의해 특화된 '승가문화'의 건립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방향으로 교의학(敎義學) 선지학(禪旨學) 수증학(修證學) 교화학(敎化學)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체계불학 구체적 실행 담아야”

김성철 교수 (동국대 불교학)

현재의 불교학에서 불전에 대한 문헌학적 연구, 역사적 연구 등의 성과들을 하나의 체계로 엮어 불교신자들에게 제공할 실행체계, 신앙체계를 구성해내는 연구가 없었다. 즉, 현대의 인문학적 불교학의 문제점은 바로 '신앙으로서의 불교학'이 연구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다.



양으로서의 불교를 연구해야 한다. 체계불학에는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모든 수행자를 진정된 불교인으로 만들어 내는 불교신앙의 구체적 실행 방법이 담겨 있어야 한다. 체계불학의 한 예로 티베트의 <보리도차제론>을 들 수 있다. 티베트 불교인들의 강력한 신앙심의 원천이 된 은 풍자베의 <보리도차제론>에서 '신앙으로서의 불교학', 즉 체계불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보리도차제론>적인 '각학(覺學)', 즉 체계불학을 통해 불교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불교인으로서의 심성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앙과 수행 차원 접근 급선무”

종석스님 (중앙승가대 불교학 교수)

불교를 신앙과 수행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지 않고, 마치 고대문자나 마야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처럼 새로 찾아낸 문헌을 분석하고 대조하고 주석을 달아 해석하는 등 인문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기존의 학설을 비판하거나 새로운 학설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최근의 불교학계 경향이다.



이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불교를 일관성이 결여된 어렵고 난해한 학문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불교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는 스님들조차 승가가 배워야 할 학문적 범위와 내용을 혼동케 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승가를 가르치고 이끌어갈 교육목표와 교육정책, 그리고 교육체계를 수립한 후 각 체계에 알맞은 교과과정을 만들어 출가 사문이면 누구나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하는 수행과 학문을 병행한 불교학으로서의 '승가학'을 정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승가학이 정립되면 자연적으로 지금까지의 교육정책과 교육체제가 바뀌게 되고 또 교과과정도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이다.

“승가학풍은 출가자 국한 우려”

유승무 교수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

종범스님은 승가학을 사회의 완성과 개인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교의, 선지, 수증, 교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승가학풍은 몇 가지 특성을 지닌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성은 신앙과 학문의 미분리다. 이는 신앙이 곧 학문의 기초이고 따라서 삶과 학문은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선종과 교종의 관계를 둘러싼 논의 전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의학'과 '선지학'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로는 학문과 실천의 미분리다. '수증학'이 개인적 실천과 관련된다면, '교화학'은 사회적 실천을 의미한다.



이같은 특성은 서구의 근대학문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함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제한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승가학풍은 엄격하게 승가공동체와 같은 조건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적용상의 제한성을 갖고 있다. 둘째, 승가학풍 대부분의 내용, 즉 교의, 선지, 수증이 개인의 완성에 대한 관심으로 지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의 외적 조건이나 사회에 대한 관심을 상대적으로 줄여줄게 하는 효과를 갖는다.



<11월 30일 열린 '승가학풍 수립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 참가자들은 대부분 인문학적 불교학을 지양하고 새로운 학문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토론

“새로운 불교학”은 어떤 사유체계인가?

■홍선 스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 김성철 교수가 지적한 전체적인 논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다만 김 교수가 말한 '새로운 불교학'은 어떤 사유체계를 말하는 것인가. 또 각학(覺學)은 어떻게 해야 가능한 것인지 설명이 되어야 한다.

“승가학풍의 사회화 세속적 타락 가능성”

■심재관 씨(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 김성철 교수가 말한 '신앙으로서의 불교학'을 하는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길러져야 하는지 궁금하다. 만일 '체계불학'이 제도적으로 요청된다면, 기존의 전통적 불교연구체제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체계불학'에서 제시할 수 있는 교정내용은 무엇이고, 한국의 전통적 수행법을 '체계불학'으로 재조직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행의 불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사회적 접근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법산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 승가학풍의 현실화와 사회화는 자칫 세속화로 타락할 수도 있다. 또한 이것은 철저한 교정내용이 수반으로 정립된 후에야 가능하다 생각된다. 유승무 교수가 제기한 불교학의 실천적 측면을 사회 속으로 융화시키자는 주장에 공감한다. 다만 수행공동체라는 승가의 특수성과 수

■신준식 교수(대우대 사회학) = 유승무 교수는 승가학풍의 특성을 신앙과 학문의 미분리, 학문과 실천의 미분리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바뀐 말하면 신앙과 학문의 통합, 학문과 실천의 통합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승가학풍과 사회화도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불교학 교수) = 발표자들이 인문학적 불교학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인문학적 불교학은 그 역할을 다 할 것이다. 승가학은 '신해행증(信解行證)'이라고 하는 실천 의미가 강하게 들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문학적 불교학을 비판하고 참다운 승가학을 구현하지 못한다면, 승가학은 학문적인 신비마저 잃게 될 것이다.

중국소림사 조동정종(대한불교조동종)성명에 답합니다. 육조대사는 도망가면서도 비밀리에 받은 법은 꼭 지켰다

조동종 적통과 조동정종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지난과오 「승산소림선사보리달마보인」등 인정농단 고백하십시오.

1. 조동종 적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테니 배우시오.

장님(一盲)이 장님들의 길을 인도한다(衆盲引一). 대한불교조동종의 지도자라는 아무개스님 한심합니다. 길을 잃어드리네! 절들으로써 중국조동종의 정통(正統, 嫡統)과 방계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시네들이 출판까지한 일승집(日勝集) 불조심등편(佛心等傳, 11페이지)을 펴십시오. 조동종 원류결(曹洞宗源流訣)이 나옵니다. 청원사(淸原寺)→석두산(石頭山)→악산암(樂山庵)→운암암(雲岩庵)→동산양계(洞山良价)를 제1조, 제2조에 운가도승(雲居道膺)→제3조에 동안도사(同安道士)→제4조에 동안관지(同安觀志)→ 제5조에 양산연관(梁山緣觀)→제6조에 대양경현(大陽警玄)→제7조에 투지칭(投子칭)→제8조에 부용도해(芙蓉道楷)→제9조에 단하지선(丹桂子)→제10조에 진철청로(眞徹淸了)→제11조에 천통종각(天童宗旻)→제12조에 설두지간(雪竇智幹)→제13조에 천동여정(天童如淨)까지 마다 단절되고 다시 제 9자인 녹문자각(鹿門自覺)으로 단절을 있고→제10조 보조일범(普照一辨)→제11조 대명보(大明寶)→제12조 옥산계(玉山桂)→제13조 설암암(雪岩菴)→제14조 만승행수(萬松行秀)→제15조 설봉목유(雪竇福裕)→제16조 영은문대(靈隱文臺)→제17조 원천유곡(源天裕谷)→제18조 순종문재(孫宗文才)→제19조 승정지엄(松嚴子嚴)→제20조 응연보(凝然了改)→제21조 구공계민(俱空契民)→제22조 무학기종(無方可從)→제23조 월주문재(月舟文載)→제24조 수산종서(水山宗崇), 수산종사(雲峯宗師)의 두 제자인 현상상운(玄相相運)스님은 소실사(少室寺, 소림사)를 중건개창(重建開創)하고 소림사로 따지고 사제상승(師弟相承)이 대를 잇는다. 다시 13세를 펴세요. 강서수장파후승 40대에 해원대종(慧元道大) 법계일승(法界一勝) 통천법철(通天井徹)각국동금(覺國復金)이하 20자가 더 있음. 고(古)는 제47대 허공암(虛空古岩)신사이고 등(燈)은 제48대 해음등(海音燈)신사이고 금(金)은 금심학봉(今心學峰) 50대입니다. 또 다시 11세를 펴세요. 이상은 본백정통(本正統)이고 지역계가 24파있는데 소림사내의 설봉목유선사를 중흥조로 하는 파가 17파고 있습니다. 제 일 먼저 14대 순덕부정사 만승행수 연파(演派)와 소림계(少林界) 설봉목유(雪竇福裕)신사의 직계제자가 아닌 창종파가 이르면 중복자(從續子) 기연파(起源派)가 발생한 지는 약 600년 전 행열(行列) 20자의 계승을 지었는데 백(宅)에서 구입해서 만든 일승집(日勝集)은 1980년대 홍콩 불사출판사가 창나라 때 광서(光緒) 27년 재편집된 천영사(天寧寺)판으로 그대로 복제 인쇄한 것을 귀종단이 재판(再版)하는 과정에 중대한 오자 부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항일파에 덕연재현(德衍在顯)이요, 묘세상견고(妙世相堅固)로다. '덕과 재주가 넘쳐 항상 이어나가 영묘한 체통 항상 견고히 하라.' 이 출전(出典)은 청(淸)대 천영사(天寧寺)판 선문일승, 불조심등 종파 전 9에 있습니다.



전법계수여 하는 해음선사, 중 일승선사 우는 학봉스님, 남정원에서

그런데 행(行)자를 행(行)자로 재(才)자를 영(永)의 오자이고 영(永)자 행열은 타계파에도 있으며 600년 전의 조상이 내린 계승(行列)은 고칠 수 없다는 불문불립니다. 이제 조동종의 적통이 무엇이고 방파(傍派)가 무엇인지 알았습니까? 당시에 책에 영구불변의 기록이 있는데 순한자이어서 그런지 보고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던 큰일입니다. 당신네가 구차하게 한자한자 맞추어 대를 분별했다는 언설은 함부로 꺼내지 마시오. 무식하다고 합니다.

2. 이게 전법증서이고 전법시 현장사건입니다

당신네들이 행등은 백척간두에 서있으니 이해나 정도를 벗어났습니다. 망구(望九)노사인 일승(一誠)방정은 선종계의 원로이자 허공선사(虛空禪師) 후계자로 모든 대중의 추앙을 받는 어른을 공칭할바식의 향으로 심기를 불관하게 해드렸는데 당신네들과 같 길이 다른 선종양대선맥인 조동종이 혼동리렸는가. 운가산(雲居山)을 거 부하는 것은 전연 조동종을 모르는 무식한 행동이고 조동정종(曹洞正宗)인 소림사계가 적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국에도 학자들이나 선종계의 큰스님들이 많은데 무식을 폭로하는 꼴입니다. 조동종의 적통은 적통대로 영구불변할 것이며 조동정종인 계파(後代 창종파)는 계파대로 영구불변할 것입니다.

① 본인은 2001년 5월 4일 중국 강서성 운가산 진여사(眞如寺)의 방장실에서 2001년 5월 4일 중국 강서성 운가산 진여사에 와서 전법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2001년 5월 4일 중국 강서성 진여사 방장 일승선사(一誠禪師) 중국 불교협회 부회장, 강서성 불교협회장의 증명서(證明書)를 집전 아래 중국 조동종 제4대 해음등(海音燈) 7)선사로부터 선사가 임원증인(금석사)로 낙상사고로) 강서성 남청사내 병원입원실에서 제6대 사법(判法子)로 전계를 받았습니다.

中國曹洞宗第四十九代 海音燈禪師將 正法親承傳於第五十代 韓國龍馬山元曉寺 諸峰今辨 轉人善自發持 中國 조동종 제4대 해음등선사를 사상으로 정법인장의 법을 전하고 제50대로 한국 용마산 원효사 학봉에게 금심이라는 법호를 내리니 스스로 잘 호칭하시라.

辛巳年 春 雲居一誠明 示新山 佛 雲居法印 證明

② 이로서 전법의 절차는 마쳤고 중국 조동종 해음등선사는 한국 50대 제자 금심학봉(今辨學峰)의 법사(法師)가 되었으며 금심학봉스님은 해음등선사의 문하로 입산(入山)한 사법자가 되었다. ③ 다음 절차는 파보(派譜, 학봉계통)를 받아야 한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파보(派譜)를 건네주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나 해외제자(海外弟子)일모 위신에 손상되지 않는 전통파보(傳統派譜, 친에 글씨로 쓴 두루마리)로 중국 천진(天津)까지 사법(사자)을 보내어 제작해 오는데 약 2개월이 소요되었고 근 일간에 전해오기로 되어 있는데 대한불교 조동종(강법해스님 주동)은 계획적으로 한·중 불교대화에 일승방장스님이 대외주관자임을 맡고 대회장에까지 가서 본인(학봉)의 사법사실을 집담한뒤하고 학봉에게 사법절차를 내리면 그만이지 않다는 반말박조로 일승노칭에게 대응했다는 중국측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④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법절차가 정부중요회의 승인사항임을 알고 노장을 궁지로 몰았는데 이미 절차는 끝이 났고 정부의 내인가(內認可)는 사법자에게는 허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3. 공문서(법계보, 입실건당증) 발행대장, 달마보인등 인정사용날인대장 사실조회.

① 아무개 스님의 상무적인 독단의 언설과 상술적으로 중국 조동정종의 공문서인 '조동정종법계보'와 불가에서는 처음 생겨난 입실건당증(入山建幢證)을 미리 한국에서 인쇄제작하여 일승법자를 중국 소림사 담당사 수심택씨 가지고 가서 중정당(반신불수인)인 소회방장스님을 기망하였는지 천재지보(千載之寶)인 '승산소림선사보리달마보인(崇山少林禪師菩提達磨寶印)'을 빌어 미리 가져 간 법계보 입실건당증사 수심택씨를 불법 날인하였고 청심소회방장의 사인 '석소회(釋素會)'를 범해스님의 지시로 임의 각인(刻印)하여 이같은 중세에 방장 청심소회에 날인하였고 날인한 것이 사실입니까? ② 소위 조동정종의 법통을 이었다고 하는 중단이 대를 이은 사법자가 없고 60여 명 덕(德)자 행열의 스님들이 공동(共同) 합동(合同) 사법자라는 사상초유의 제도는 중종보다 승려증을 날인하는 수단방법으로한국에 덕(德)자 행(行)자가 행열의 소위입실건당의 법호와 파보와 법계는 모두 아무개 스님이 일방적으로 작법시행하였는데 이제는 부처님에게 고백하고 스스로 이 비리를 친명합니다. 너무하셨다는 양심도 없습니까? ③ 입실건당증 보세요. 중조소림제호(中曹少林第號)라는 문서번호는 발행대장이 있어 기재했는지 소림사 영산방장에게 조회질의 합니다. '법계보' 및 제공문서를 한국에서 임의제작 인쇄하여 귀중한 달마보인까지 눈 속어 날인하여 한국에 날인하였는데 소림사에 발행대장과 법보사용날인대장 등 등록된 공문서인지 아니면 위장문서인지 조회질의하겠습다. 중국대사관을 통하여 종교청에 질의합니다. ④ 본인은 누차에 법통을 바로 세우고 중단을 쇄신하는 주장을 중의회에 제의하여 중의회까지 통과한 사실이 있으나 법부소속이고 본인은 11년 입증생활과 총무원장직 재임시 물심양면의 헌신공양에 이르지 않았고 중단 회합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조동정종의 내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덮어놓으시오. ⑤ 본인이 갈 길은 갑니다. 당신네들이 일승방장스님을 무례하게 괴롭혔다고 해서 내 갈 길을 막는 게 아닙니다. 한국 조동종 총본산 창종을 위한 학술발표회를 2월 중순경에 열어 조동종의 근거를 확실하게 밝힐 것입니다. 아무개 스님이 인쇄제작하여 소림사 법보 및 임의각인된 인정사용날인한 현통을 중국 정부 종교청, 소림사 석영산방장에게 정식으로 발송하여 그 진위를 꼭 밝히겠습니다. ⑥ 또한 아무개 스님이 중국 허연화상을 불순부정의 혼잡정도로 고인을 매도한 근거서류도 함께 보내어 다시는 중단을 농단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⑦ 바른 전법계와 바른 파보(派譜)를 받은 스님은 한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끝으로 못한 사람이지만 행장은 명확하게 밝혀 폄하하는 이에게 답합니다. 소남은 덕승문중(德崇門中) 만공선사(滿空禪師)의 문인으로 1951년 16세에 모악산(母岳山) 금산사(金山寺)에 입산, 조계종 정화 15비구대표 감찰원장인신 보안선사의 은사작로 사집(四集) 사교(四教)는 마쳤으나 비구계행(比丘戒行)은 끝내 지키지 못한 죄인입니다만 법랍 51세로 남에게 큰 누 안끼치고 살아왔습니다.



韓國曹洞宗總本山 창종발기위원회 대표 금선학봉 전국창종발기위원회 위원 일동